

## 작품 개요

『부활절 칸타타』는 작곡자가 35세 때인 1956년 4월 9일 김병기(金炳基, 1919~1987)의 시에 곡을 붙여 5곡 전곡을 완료하였다. 작사자 김병기는 본명이 김시형으로 서울성남교회 집사로 봉직하면서 성가대의 총무로, 시인으로 활약하였다. 이 곡은 1957년 6월 25일 조선포털에서 열린 <제3회 나운영 작품 연주회>에서 서울성남교회 성가대에 의해 전곡이 초연되었다.

## 작품에 얽힌 이야기

『부활절 칸타타』 중에서 「골고다의 길가」(후에 골고다의 언덕길로 바꿈)와 「할렐루야」 2곡이 1955년 4월 10일 영락교회에서 열린 한국 교회음악협회 주최 「부활절 음악예배」에서 서울성남교회 성가대에 의해 초연되었을때에, 음악예배 도중 사람들이 소란을 피우고 심지어 중간에 퇴장하는 사람들도 있었다. 국악냄새가 난다. 그러니까 속된 것이다. 성가라고 할 수 없다. 거룩하지 못하다. 그래 가지고 폄하하는 사람이 많았었다. 나운영은 우리 마음에 흐르고 있는 가락을 통해 신앙을 전달하고 싶었을 뿐인데, 크나큰 물의를 일으킨 것이다.

나운영이 낙심하여 연주를 마치고 내려올 때 강신명 목사님이 “앞으로 우리 한국교회의 음악도 이런 방향으로 나가야 할 것 같소. 정말 감명 깊었습니다.” 하시며 격려해 주셨다고 한다.

## 작품 해설 1

나운영은 이 곡에서 한국적인 교회음악의 새로운 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과감한 시도를 했다. 즉, 민속조의 선율과 타령장단 등이 쓰인 이 악곡의 기조사상은 결국 한국적인 교회음악의 행방을 위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다. 유구음계, 판소리식 선율, 민속조의 선율, 그리고 타령장단 등을 사용한 토착화 작업을 본격적으로 성곡에 유입시킨 야심적인 작품이라고 평가받을 수 있는 작품 중의 하나가 이 작품이 될 것이다.

김병기의 Text에 모두 5곡으로 엮은 이 작품은 「X-mas Cantata」와 함께 작곡기법상으로는 물론이거니와 성곡의 토착화란 점에 있어서도 매우 주목되기도 한다. 5곡 가운데서 주요한 악곡을 살펴 본다.

### <1곡: 예루살렘 입성>

이 곡은 Tenor Solo와 혼성합창단, 그리고 남성합창단으로 나누어 연주하도록 되어 있고, 제2합창단의 어느 한 연주자가 Tambourin을 연주하도록 되어 있는데, 이때 제2합창단과 Tambourin 연주자가 모두 pppp→fff→ppppd의 강약을 필히 지키도록 요구하고 있다. 이 요구는 Text 내용에 의거하여 예루살렘에 입성하시는, 나귀를 탄 예수님이 멀리서 가까이

왔다가 다시 멀리 사라지는 모습을 표현하려는 작곡자의 의도로 해석된다. 또 Tambourin을 편성한 까닭은 예수님이 타신 나귀의 방울소리를 묘사적으로 나타내기 위한 작의로 여겨진다.

그리고 제2합창단에서는 “오시네” 혹은 “주님이” 의 요소가 전곡을 통해서 무려 72회(반복 제외)나 반복된다. 마치 Ground Motive나 Basso Ostinato적인 작곡수법을 활용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 〈2곡: 변화산상〉

유구음계와 계면조를 활용한 이 곡은 15/8박자의 'A-B-A' 로 나누어 볼 수 있는 Soprano Solo와 혼성합창단을 위한 악곡이다.

[A]부분의  $J.=88$  속도에서 먼저 여성 2부합창으로 시작되는데 이때 주선율은 Soprano에 있게 되나, 곧 남성합창이 이를 받을 때에는 Bass에 주선율이 흐르게 된다. 또 여기에 쓰인 화성은 완전4도 혹은 완전5도음정을 주로 사용하고 있는 것이 주목된다.

[B]부분(9마디)은  $J.=44$  의 느린 속도 속에서 혼성4부합창으로 8마디가 유도되었다가 Soprano Solo가 혼성합창 위에서 노래된다.

[A'] 부분은 37마디부터 재현되는 듯 했다가  $J.=104$ 의 coda에 돌입된다.

#### 〈4곡: 골고다의 언덕길〉

성가에 판소리식 선율을 강렬하게 반영시킨 악곡이라고 말할 수 있는 작품이다. 이 곡에서는 창극조품의 선율을 도입하여 토착화 과정에 박차를 가하는 한편, 또 다른 한쪽으로는 한국성곡의 새로운 방향을 확실하게 제시하고 있다.

Alto Solo와 Tenor Solo, 그리고 혼성합창단이 연주하도록 작곡된 이 악곡에서는 부가화음과 이 시기에(1955~58-제2기) 즐겨 사용했던 4도구성, 혹은 5도구성의 화음을 사용했다.

#### 〈5곡: 할렐루야〉

이 악곡에 대하여 작곡자는 이러한 기록을 남겨둔 것이 있다.

「이 곡은 부활절 칸타타(1956년 작) 중의 마지막 곡으로서 A-B-A-C-A-D-A-E-A-Codetta-Coda의 Rondo형식으로 작곡되었다. 이에 있어서 A는 합창만으로 연주되며, B,C,D,E는 각각 Alto,Soprano,Tenor,Bariton 독창으로 연주되며 78~79소절의 간주에 이어 80소절부터가 Codetta이고, 96소절부터가 Coda이다.

1956년대의 그의 그러한 상념은 당시에는 비록 물의를 야기시켰다 하더라도, 거의 반세기 가 지난 오늘의 시점에서 돌이켜 생각해 보면 도리어 작곡자의 의도가 시대적 입장에서 선구적이었다고 볼 수밖에 없다.

- 「안일웅 나운영의 음악작품에 반영된 작곡기법에 대한 고찰」 중에서 -

## 작품 해설 2

이 곡은 예수님과 제자들의 생활(변화산상)로부터 시작하여 고난, 죽음, 부활에 이르는 과정을 모두 5개의 곡에 담았다.

1번 「변화산상」은 5음음계의 구성음들을 뭉쳐 만든 5계화음과 특이하고 신비한 효과를 주는 오키나와 지방의 음계를 사용한다. “아”와 “힘”으로 노래되는 속에 “이 는 내 사랑하는 아들이니”라는 말이 들려 온다.

2번 「예루살렘 입성」은 줄기차게 처음부터 끝까지 반복되는 오스티나토 베이스 가 울리며 군중들의 “호산나”와 찬양의 소리가 울려 퍼진다. 음악적 구성은 완벽하게 5음음계적이다.

3번 「겻세마네의 기도」는 테너 독창곡이다. 서양음악의 전통과는 달리 예수역을 테너가 맡고 있다. 임시표에 의해 비음계음들 대거 사용되며 “할만 하시거든 이 잔을 떠나게 하옵소서”라고 노래한다.

4번 「골고다의 언덕길」은 공허한 5도에 단2도의 제6음이 첨가되는, 메마른 울림으로 시작한다. 한국의 민속음악에서 들을 수 있는 탄식노래를 생각나게 하는 엘토 독창이 반주 없이 단조 성격의 5음음계로 죽음의 길 골고다와 그 길을 간 예수를 노래한다.

3화음을 피하거나 아주 드물게 사용하고, 합창 성부들은 나름의 선율을 통해 우연한 화음을 만든다. 십자가상의 예수는 “아버지여 저들을 용서하소서, 저들은 제 하는 일을 모르옵니다”는 판소리의 탄식적 성격의 시김새를 사용한다. 합창 마지막 가사인 “골고다”는 긴장도 높은 큰 소리로 두 개의 5도병행으로 미끄러져 내리며 갑작스러운 끝을 맺는다. 합창 부분만은 새아화현인데, 반주가 이를 흐리게 하려고 엄가음  $b^b$ 을 잠깐 보인다. 이러한 마침은 그 음향적 성격이 여타의 부분과는 극히 대조적이어서 충격적이다.

5번 「할렐루야」는 재즈풍 리듬의 합창과 5음음계적인 독창곡이 결합되어 서로 번갈아가며 노래한다. 합창 부분은 활기찬 싱크페이션 리듬과 자주 사용하지 않는 새로운 화성결합에 유의한다.

- 홍정수, 한국교회음악사, 가온음, 2021 중에서 -

(아쉽게도 이 곡의 원보는 분실되어 여기에 소개하지 못합니다.)